본란의 기사는 한국무역협회에서 발행하는 「일간무역」에서 발췌 게재한 것이며 세부사항에 대한 문의는 한국무역협회(Tel : 551-5454)로 연락바랍니다.

1. 세계 반도체시장 내년 14.2% 신장

D 램 등의 가격하락에도 불구, 내년도 세계 반도체 시장은 14.2%의 순조로운 신장이 예상된다고 일본의 전파신문이 밝혔다. 이같은 전망은 미국의 유력 기업조사 업체인 데이터 퀘스트의 연차회의에서 집약됐다.

데이터 퀘스트측에 따르면 내년 세계 반도체 시장은 1220억 달러 규모에 이를 전망이다. 올해는 약 1070억 달러 규모의 매출이 예상되고 있다. 이 수치는 지난 '93년에 비해 약 25% 증가한 것이다.

주요 신장요인으로는 달러대 엔화의 환율변동과 D 램 가격의 안정 등이 될 것이라고 이 회사측은 분석했다. 아울러 '95년도 반도체 성장률은 최악이더라도 12%, 최고 20%에 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종류별로는 아날로그 IC의 호조가 '95년도에도 그대로 이어질 전망이다. 아날로그 IC의 '95년 수요규모는 '94년보다 11.6% 증가한 172억 달러 수준에 달할 것으로 이 회사측은 예상했다. 가전 및 멀티미디어 시스템 분야에서 아날로그 혼합신호 이용이 증가하고 있는데다가 애드온 보드 등의 수요가 크게 늘고 있는데 따른 전망이다.

그동안 반도체시장 성장에 견인한 역할을 해왔던 마이크로 프로세서(MPU)와 마이크로 컨트롤러(MCU) 역시 모두 25% 가까운 380억 달러 규모의 시장이 형성될 전망이다.

특히 로직 반도체의 경우도 10% 정도 성장한 200억 달러 시장이 예상됐다.

올해 전년대비 31% 증가한 310억 달러 규모의 시장형성이 예상되고 있는 D 램은 12%의 고성장을 유지, 350억달러 규모의 시장형성이 예견됐다.

지역별로는 일본이 4.8% 증가한 306억 달러 시장을 형성, 달러베이스로 금년보다 19% 증가할 것으로 데이터퀘스트측은 파악했다. 반면 북미, 아시아 태평양, 유럽 등은 각각 17% 정도의 성장을 하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MPU 분야에서는 인텔의 팬티엄 시장이 크게 확대되는 가운데 IBM과 모토롤라 진영의 파워 PC도 서서히 두각을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X86 계열의 MPU도 내년까지는 여전히 강세를 보이며 건재할 것으로 예상됐다.

주문형반도체(ASIC) 분야에서는 게이트 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 때문에 3년전까지만 하더라도 게이트 어레이 설계의 절반수준에 머물던 셀 베이스 IC가 크게 신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일본 등 일부 국가에서는 공간을 적게 차지하고 코스트 면에서도 급속하게 개선되고 있는 셀 베이스 IC의 신장이 한층 더 두드러질 것으로 데이터 퀘스트측은 내다봤다.

2. 북미 3국 제품표준화 본격 추진

미국, 캐나다 및 멕시코 3국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시행에 따라 제품표준화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

북미 3국은 최근 멕시코시티에서 표준화회의를 통신 의료 등 12개 부문으로 나눠 개최,

제품표준화 기준을 단일화하는 방안과 NAFTA의 표준화 의무규정 제정문제 등을 집중 논의하고 있다.

이는 이들 3국이 지난 '91년부터 매년 정기적으로 제품표준화협의를 벌여 왔으나 올부터 NAFTA가 발효되면서 북미시장에서 판매되는 각종 제품에 대한 표준화작업이 시급해졌기 때문이다.

조지 윌링마이어 미표준협회(ANSI) 부회장은 이와 관련, 북미 3국은 정부위임 기관들이 공통된 기준으로 제품표준화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각국이 관련기관을 상호 인정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윌링마이어부회장은 이어 현 NAFTA 규정에 따르면 멕시코는 앞으로 4년내 미국정부가 표준평가기관으로 지정한 기관을 인정, 이들 기관이 인증한 제품에 대해서는 별도의 평가절차를 거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빠르면 2~3년내 북미 3국간 제품표준화가 완전히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 회의에 참석한 미국측 관계자는 북미 3국간 새로운 제품표준화 기준이 마련되면 값싼 아시아지역산 제품의 북미시장유입을 억제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어 멕시코도 이 작업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3. 멕시코, 원산지 증명제 엄격시행

멕시코정부는 미국대형유통업체들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 직물 의류 및 신발류 등 아시아산 경공업품에 적용하고 있는 엄격한 원산지증명제도를 완화하지 않을 방침이다.

에두아르도 페레즈 몬타 멕시코상무부 차관은 중국산 덤핑제품이 제3국을 통해 계속 유입되고 있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엄격한 제도운용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페레즈차관은 이어 만약 이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용할 경우 심각한 문제에 봉착하게 될 것이라면서 지난 8월부터 발효된 원산지증명제도를 수정할 계획이 없다고 강조했다.

페레즈차관은 또 미국의 유통업체들이 아시아산제품을 미국으로 일단 수입통관한 후 멕시코로 재수출하고 있는 점을 감안, 원산지증명서 사본으로 멕시코 국경 통관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미직물의류수입자협회(AITA)의 요청도 원산지증명서가 위조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미국유통업체들은 원산지 증명서의 위조로 인한 부작용은 전체 교역량에 비해 아주 미미한 데 이를 이유로 사본을 받을 수 없는 것은 불합리한 결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페레즈차관은 관세법을 일부 개정, 월마트나 나이키와 같은 대형수입업체들이 수입통관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수입업체들이 자체적으로 발급하는 원산지증명서를 확인 및 감사절차를 거쳐 수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유통업체와 섬유수입업체들을 대표하는 미전국유통연합(NRF)측도 최근 멕시코에 대표단을 파견, 미국의 대형유통업체들이 멕시코 상무부의 검사와 확인을 받아 원산지증명서를 자체적으로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멕시코 정부당국과 중점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4. 일본, 세탁기 수요 호조

일본의 금년도('94. 4~'95. 3) 세탁기 수요는 작년도이후의 지속적인 호조를 배경으로 465만대 전후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특히 전자동세탁기는 작년도의 전년비 7% 증가에 이어 6%의 높은 신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백색가전의 경우 견실한 신장세를 지속해 냉장고와 함께 세탁기수요도 스테인리스조전자동세탁기의 히트로 고수준의 신장을 유지하고 있다.

세탁기수요는 버블경기시기였던 '90년도에

사상최대였던 502만대를 기록했으나 그후 '91년도에 495만대, '92년도에 461만대로 감소세를 계속하다 '93년도에는 466만대로 약간 상승했다.

금년도엔 상반기중 보합세를 보임에 따라 연간으로도 전년수준의 확보는 무난하리라는게 일반적인 견해이다. 특히 전자동세탁기가 호조를 지속해 연간신장률도 작년도의 7%에 육박하는 6%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 전자동세탁기의 구성비도 74% 정도로 상승, 작년도의 70%보다 4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업계에선 전자동세탁기의 한계 보급률을 70% 정도로 예측했으나 현재의 추세로 나간다면 80%에 이를지도 모른다는 견해를 조심스럽게 내놓고 있다. 스테인리스조의 효과로 전자동세탁기의 교체구매 사이클이 빨라지고 있는 것도 전자동세탁기 수요의 호조를 뒷받침하고 있다.

전자동세탁기 가운데 스테인리스조의 구성비는 50%를 넘어서고 있는데 5킬로그램이상의 전자동세탁기의 경우 80% 정도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스테인리스조가 전자동세탁기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가운데 절수형, 절시간형 등의 새로운 요구에 부응한 상품이 인기를 얻고 있다.

5. 멀티미디어용 화면처리압축기술 개발

일본의 도시바(동지)가 디비오 온 디맨드, 디지털 비디오 디스크(DVD) 등 폭넓은 멀티미디어 기기를 실현하기 위한 주요기술 중의 하나인 멀티미디어용 화면처리 압축기술을 개발했다. 이 기술은 국제적인 표준규격화 작업이 진행중에 있는 MPEG-2 규격에 기초한 것이다. 디지털 동화상을 리얼 타임으로 재생할 수 있는 비디오 엔코더 개발이 주요 내용이다. 고정 레이트를 부호화하는 외에 가변 레이트 부호화까지 대응할 수 있는 MPEG-2 규격틀인 리얼타임 엔코더는 이번이 세계 최초이다.

이 장치는 현재의 비디오 영상을 디지털화해 그 정보를 리얼타임으로 수십분의 1로 압축할 수 있기 때문에 쌍방향 CATV나 인터액티브 TV, 비디오 온 디맨드, DVD, 차세대 게임기 등 각종 멀티미디어 기기에 폭넓게 사용할 수 있다. 이 장치는 △디지털 CATV에 적용할 경우 1개 채널분으로 10개까지의 채널분 동화상을 전동하는 송출장치로 사용 가능하고 △비디오 영상을 압축, 하드디스크 등에 저장함으로써 임의로 보고싶은 프로그램에 접근할 수 있는데다가 △광 디스크 등의 축적 미디어를 통해 영화 등의 동화상을 종전의 10분의 1로 압축, 기록할 수 있는 외에 △디지털 공중회선을 이용, 현재의 비디오 방송 방식의 고화질 비디오 회의 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통신비용의 절감도 도모할 수 있다.

MPEG-2 신호를 이용, 디지털 동화상을 송수신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전용 엔코더(압축용)와 데코더(압축 해제용)가 필요하다.

이 회사는 MPEG-2 규격에 따른 압축 해제용 LSI를 이미 개발, 이달 중 상품화 할 계획이다. 이번 개발한 엔코더와 압축 해제용 LSI를 결합함으로써 MPEG-2 규격에 맞는 디지털 동화상의 압축 및 압축 해제 시스템을 용이하게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6. 하이테크 · 환경기기분야 투자 검토

일본의 대한 투자환경조사단은 한국에 하이테크 · 환경기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투자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사단장인 오오니시 마사후미(대서 정문) 일본상의 부회장은 10월 14일 오전 신라호텔에서 이한기자회견을 갖고 한국은 여타국에 비해 임금이 비싼 대신 고급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어 하이테크제품과 같은 첨단제품의 투자가 유망시된다고 말했다.

또 올들어 외국기업의 대한직접투자가 전년

동기비 64.1%나 증가하는 등 한국의 투자환경이 크게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앞으로 일본 기업의 대한투자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조만간 자동차부품과 플라스틱가공분야의 후속투자단 파견계획이 확정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오오니시 조사단장은 "일본의 대한투자가 늘기 위해서는 한국에서의 인센티브가 있어야 할 것"이라며 "한국의 경우 임금은 다소 높으나 노동력과 기술력의 수준이 높다는 장점이 있어 일본의 하이테크기술과 한국의 양질의 노동력의 결합을 통한 산업협력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7. 일본, 텔레비디오 제품 급속 다양화

일본 시장에서 연간수요 100만대가 예상되는 텔레비디오 제품이 빠른 속도로 다양화되고 있다고 일본의 전파신문이 보도했다. 당초 텔레비디오는 10인치, 14인치 등 소형 TV에 비디오를 탑재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와이드 TV에 탑재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기능 면에서는 클로즈도 캡션을 탑재한 제품들이 두드러지게 증가하고 있다. 일본에서 텔레비디오를 생산하는 기업은 14개로 늘어났으며 생산기종도 60여개로 급증했다.

결과적으로 텔레비디오는 일본 TV 시장에서 일대 세력권을 형성하고 있다.

텔레비디오의 일본수요는 재작년 약 45만대, 지난 해에는 70만대를 기록했다. 금년도에는 지난 4월~6월 기간동안 23만대 이상 판매돼 전년 동기대비 50% 이상 증가했다. 이같은 호조에 힘입어 금년도 판매대수는 100만대 돌파가 확실시되고 있다.

일본에서는 컬러 비디오 판매단가가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다. 이 때문에 기업들이 단가를 높일 수 있는 텔레비디오 분야에 한층 더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를 위해 최근 와이드 TV에 비디오를 내장하는 경우가 크게 늘고 있다.

와이드 텔레비디오를 판매하고 있는 업체들은 샤프(4개기종)을 비롯, 마쓰시타(송하)전기, 히타치(일립), 산요, 소니, 일본빅터(각각 1개 기종) 등이다. 28인치 이상 제품에는 마쓰시타의 28인치 제품과 산요의 32인치 제품, 샤프의 28인치, 32인치 제품이 각각 출하된 상태다. 소니는 최소형인 16인치 제품도 생산하고 있다.

이밖에 기능 면에서는 BS내장제품, G코드 제품, 컴팩트 디스크(CD) 및 카세트 라디오 내장제품, 클로즈드 캡션 사용제품 등이 각각 출하되고 있다.

8. EU 통신시장개방 스케줄 작성

EU(유럽연합) 집행위는 10월 25일 '98년까지 역내 통신산업의 독점을 끝내고 내년부터는 일부 통신서비스부문에서 케이블TV 및 에너지망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라고 회원국정부들에 촉구했다.

이같은 제안은 집행위가 다음 달 통신장관회의에 제출할 '통신산업연서'에 포함돼 있다.

그러나 이 안에 대해 자국통신산업의 입지를 유지하고자 하는 회원국정부들이 크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난달 EU산업 및 통신장관들이 회동, 의장국인 독일이 마련한 역내 통신산업 등의 자유화안에 대한 협상을 벌였으나 합의를 도출하는 데는 실패했다.

독일, 영국, 네덜란드 등은 집행위 녹서에 명시된 역내 통신시장 자유화에 찬성 할 뿐만 아니라 녹서수준보다 더 빠른 시장개방을 희망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스페인, 포르투칼, 벨기에 등은 강력한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집행위 관리들은 지난주 승인되지 않았지만 현재의 녹서내용이 크게 바뀌지 않고도 통과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집행위 녹서는 역내 통신시장 독점이 철폐될 경우 서비스 가격이 낮아지고 투자가 급증하는 한편 통신쇼핑 및 뱅킹 등과 같은 새 서비스가 개발되는 등 큰 수확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녹서는 국가독점상태가 종료되지 않으면 EU 시장 전체를 커버하는 통신망 및 서비스가 구축되지 못할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녹서가 밝히고 있는 통신산업자유화안에 따르면 '95년부터 케이블TV, 철로, 에너지망 등이 활용돼 이미 자유화된 데이터전송, 기업내 음성통신, 이동통신, 위성통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공공전화서비스를 위한 통신인프라스트럭처 자유화는 회원국들이 합의한 대로 '98년까지 완료될 예정이다.

9. 서방측 최대규모 「러」 광통신망 사업추진

독일과 파랑스의 국영통신회사들은 미국의 US웨스트와 두 러시아통신회사들과 합류, 러시아전역을 연결하는 대규모 광섬유통신망 구축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도이체 텔레콤, 프랑스 텔레콤, US 웨스트, 로스텔레콤, 러시언 오버레이 네트워크 등은 '50X50' 이라는 프로젝트 계약에 서명했다.

동프로젝트는 5만킬로미터에 달하는 광섬유 케이블을 깔고 50개 이상의 디지털 전화교환기를 설치하는 내용으로 돼있다.

동프로젝트 추진업체들은 여기에 모두 400억달러가 투입되고 공사기간은 10년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US 웨스트의 블레어 존슨 대변인은 러시아의 경제개발을 위해서는 통신망 구축이 시급하다고 밝히고 이번 프로젝트는 이에 큰 공헌을 하게 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US 웨스트에 따르면 러시아의 전화회선수는 100명당 10회선에 그쳐 100명당 80회선인 미국과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US 웨스트 등 동프로젝트 추진업체들은 향후 10년간 러시아의 통신망수준을 100명당 35회선인 지금의 스페인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러시아의 알렉산더 크룹노프 제1통신차관은 동프로젝트에 대한 러시아측의 투자액이 8억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프랑스 텔레콤은 동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내역은 연구를 거쳐 결정되겠지만 최초투자는 수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US 웨스트 등 서방측 파트너들은 프로젝트 추진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중 하나로 국제금융공사(IFC)나 미 해외민간투자공사(OPIC)를 활용하는 방안을 옵션으로 채택해 놓고 있는데 이미 OPIC는 러시언 텔레커뮤니케이션즈 디벨럽먼트(RTD)사에 1억 2,500만달러의 차관을 제공한 바 있다.

서방측 파트너들은 동프로젝트가 산악, 사막, 툰드라 지역을 망라해 9개의 다른 시간대를 거쳐야 할 뿐만 아니라 여러 지방정부 차원의 관료주의도 타파해야 하는 등 여러가지 어려움들 때문에 정확한 비용을 파악하기 까지는 적어도 4개월의 연구가 요청된다고 말했다.

US 웨스트의 경우 이미 러시아에서 두개의 무선전화회사 및 한개의 국제장거리전화회사에 투자해 수익을 거둬들이고 있다.